

# “내 모든 것 걸고 9초대 진입”...김국영 유럽서 새로운 도전



김국영

“익숙한 방법으론 새 기록 못세워”  
한국 육상 첫 유럽서 시즌 시작  
실내육상 60m 4개 대회 출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준비  
6회 연속 세계선수권 출전 목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은 유럽에서 2022시즌을 시작하는 김국영(31·광주시청)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9일 출전한 김국영은 오는 22일 독일 경기 등 실내육상 60m 경기 4개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이어 3월 19~21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기량을 점검한다.

그가 유럽 일정을 택한 것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7월 미국 오리건주 유진)와 아시안게임(9월 중국 항저우)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다. 랭킹포인트를 최대한 확보해 출전권을 손에 넣겠다는 것이다.

실내 육상 60m 경기 출전은 세계육상선수권 기준 기록 통과와 ‘준비 단계’다.

김국영은 3월 7일까지 실내 육상 60m 6초63의

기준 기록을 통과하면 2022 베오그라드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얻는다. 동시에 올해 유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출전을 위한 랭킹 포인트도 획득할 수 있다.

김국영은 “실내 육상 60m는 한국 선수들에게 매우 낮은 종목이다. 나도 공식 경기는 처음 치른다”며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들과 뛰면 당연히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내 기록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큰 무대인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트랙에서겠다는 각오로 훈련할 계획이다.

김국영은 2011년 대구대회부터 5회 연속 세계선수권에 출전했다.

2013년 모스크바 대회에서는 400m 계주 대표로 출전했고, 2011년 대구, 2015년 베이징, 2017년 런던, 2019년 도하 대회에서는 100m에 나섰다.

2017년 런던 대회 남자 100m에서는 한국 육상 단거리 사상 최초로 준결선에 진출하기도 했다.

2022년 유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기준 기록(10초05) 통과다.

김국영이 올해 6월 26일까지 10초05의 기준 기록을 통과하면 6회 연속 세계선수권 진출을 확정한다. 10초05에 도달하지 못하면, 랭킹 포인트를 부지런히 쌓아야 한다.

김국영은 “내 한국기록(10초07)보다 기준 기록이 높지만, 꼭 기준 기록을 통과해 세계선수권 출전

권을 얻고 싶다”며 “올해 세계선수권에서 9초대 기록을 세우는 상상도 한다”고 했다.

김국영은 “익숙한 방법으로 시즌을 시작하면 또 ‘10초1, 10초2대 기록’만 세우고 끝날 것 같았다. 무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은 내가 100m 9초대에 도전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영은 육상 100m 한국기록(10초07) 보유자다.

김국영은 19세 때부터 육상 단거리 불모지 한국을 대표하는 스프린터로 살아왔다.

그는 2010년 10월 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31를 기록, 서말구가 1979년 멕시코에서 세운 한국기록 10초34를 31년 만에 바꿨다. 2017년 6월 25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BS배에서는 10초13으로 자신의 한국 기록을 경신하더니, 이를 뒤인 6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치른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 100m 결선에서는 10초07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개인 통산 다섯 번째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김국영은 “대한육상연맹, 소속팀 등의 도움으로 유럽에서 시즌을 시작한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꼭 살려서, 9초대 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 ‘피겨 간판’ 차준환 2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우승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2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선다.

차준환은 9일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76회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겸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4.80점, 예술점수(PCS) 90.20점으로 총점 185.00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프로그램 점수 98.31점을 합한 최종 총점 283.31점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차준환은 1차 선발전 총점(239.16점)과 2차 선발전 총점을 합해 전체 1위의 성적(522.47점)으로 1, 2차 선발전 총점 2위까지 주는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2차 선발전에서 240.84점, 1, 2차 선발전 총점 477.85점을 기록해 2위 자리에 오른 이시형(고려대)도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 쿼터를 품에 안았다.

차준환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 출전 기록을 쓰게 됐다.

한국 남자 싱글 선수 중 2회 연속 올림픽 출전은 정성일(1988년 캘거리·1992년 알베르빌·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 이규현(1998년 나가노·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 이어 세 번째다.

차준환은 휘문고 재학 시절 평창올림픽에 출전해 248.59점으로 한국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순위인 15위를 차지한 바 있다.

차준환은 이날 첫 번째 연기 과제로 4회전 점프인 쿼드라플 토루프를 깔끔하게 성공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이어 쿼드라플 살쥬까지 큰 실수 없이 처리하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뽐냈다. /연합뉴스



8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린 제76회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겸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한 고려대 차준환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골키퍼 손민지 ‘1500 세이브’

역대 4번째 기록 달성  
팀은 SK에 32-34 패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골키퍼 손민지(36)가 1500세이브를 달성했다.

손민지는 지난 8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SK 슈가글라이더즈전에서 1500세이브를 달성했다.

손민지는 전반 시작하자마자 SK 최수지의 슈트를 막아내 역대 4번째 1500세이브 기록을 세웠다.

손민지는 “2000세이브까지 노려보고 싶지만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광주도시공사를 ‘플레이 오프 전력을 갖춘팀’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국내 여자부 리그 최고참인 손민지는 “후배들에게 매경기 최선을 다하되, 부상당하지 않도록 몸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경험과 기량을 갖춘 손민지는 없어서는 안될 자원”이라며 “결정적 위기에서 골문을 지키는 든든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32-34(15-15, 17-19)로 패했다. 이로써 광주도시공사는 시즌 1승 1패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강경민(13골)과 김지현(7골)이 20골을 합작하며 분전했으나 막판 뒷심에서 밀렸다.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겨놓고 결정적인 슈트



광주도시공사 골키퍼 손민지가 지난 8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SK 슈가글라이더즈전에서 슈트를 막아내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번번이 골키퍼에 막히거나 골대를 뺏아가면서 승부를 되돌리지 못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전을 15-15로 마치는 등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들어 SK와 무려 10차례

나 동점 상황을 연출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하지만, 후반 27분께 31-33으로 리드를 빼앗긴 뒤 승부를 되돌리지 못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윤곽여성체육대상에 양궁 안산·배구 박정아

2020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을 차지한 안산(21·광주여대)과 여자배구 4강 진출에 앞장선 박정아(29·한국도로공사)가 32회 윤곽김운용 여성체육대상을 받는다.

윤곽 김운용 여성체육대상 조직위원회는 부문별 시상자를 확정해 지난 7일 발표했다.

윤곽여성체육대상은 고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호 윤곡(允谷)을 따 제정한 상으로, 1989년부터 해마다 한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 체육인에게 수여해 왔다.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인 안산은 여성체육대상 개인 부문, 박정아는 단체 부문을 각각 수상한다.

아티스틱스위밍의 선구자인 박지영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이 공로상을,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의 이경원(42) 코치가 여성지도자상을 받는다.

탁구의 차세대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한 신유빈(18·대한항공)은 4명의 신인상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경관의 피
- 3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신데렐라 2: 마법에 걸린 왕자
- 4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해피 뉴 이어
- 5관 씽2게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 6관 경관의 피
- 9관 경관의 피, 해피 뉴 이어
- 7관 세네케를 경관의 피
- 8관 세네케를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0회 정기연주회  
2022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 2022. 01. 14.(금)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

